

2010년 농림수산물 예산 편성안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도 국가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 2010년 전체 예산 규모는 291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5% 증가했다. 이중 농림수산물 분야 예산은 17.2조원(산하기관 예산 포함)으로 올해 예산 16.9조원보다 2.1% 늘었다.

올해보다 증가한 내년도 농림수산물 예산부문은 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통분야(3조2,478억원), 농업생산기반 관련 예산(2조3,070억원), 친환경비료 구입지원비(2,314억원), 식품산업 관련 예산(5,652억원) 등이다. 반면, 감소한 부문은 농업체질 강화(2조3,681억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2조5,589억원),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1조6,977억원) 등이다. 한편, 군인생일용 쌀떡 케이크 지급(47억원),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에 농업 지원(1,320억원) 등의 부문은 신규로 편성되었다.

수혜자별 주요 혜택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지역·목재펠릿 등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원에 농가에 대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우량종자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의 생산비 50%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 또는 농어촌 이주자는 농협으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 소유한 토지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정부가 나서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 준다.

한편, 농림수산물 이외 주요부문 예산 편성안은 보건·복지 81조원, 일반공공행정 49.5조원,

교육 37.8조원, 국방(일반회계) 29.6조원, 사회간접자본(SOC) 24.8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4조원, R&D 13.6조원, 공공질서·안전 12.9조원, 환경 5.4조원, 문화·체육·관광 3.7조원, 통일·외교 3.4조원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값 안정 대책

농림수산물부는 수확기 쌀 매입물량을 대폭작이었던 지난해의 247만톤보다 23만톤이 늘어난 270만톤 이상을 매입해 산지 유통업체의 매입 심리를 살리고, 농가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쌀 수확량은 평년작 457만톤보다는 많지만 전년 수준 484만톤에는 못 미치는 465만톤 내외의 풍작인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이 437만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28만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학교급식, 군수용 등 기본적으로 방출해야 하는 공공물량 19만톤을 제외한 18만톤은 시장에 공매를 하지 않고 비축해 격리하고, 나머지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에서 매입해격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하려는 쌀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시·군에 '벼 매입 지원센터'를 운영, 부당하게 매입을 기피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해서는 매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도 인하한다.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수확기 매입량이 전년보다 15% 늘어나는 RPC 등의 경우 2%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며, 거래형태는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확대해 매입량을 늘릴 예정이다.

쌀 수요확대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 재고 중 일부를 주정용(술)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 처분하고, 군장병 생일 때 쌀

케이프를 전달하며, 밀가루에서 쌀로 손쉽게 대체가 가능한 품목인 고추장, 떡볶이 떡 등에 쌀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급식으로 쌀자장면, 쌀국수, 쌀빵 등을 공급하는 방안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란색 참다래, 나빠진 간 회복에 탁월 - 한라골드 품종, 간 손상방지효과 우수성 입증 -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내 품종 황색 참다래인 '한라골드'가 간 손상 방지에 아주 탁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해온 제주대학교 이영재 교수팀이 2008년부터 국내에서 재배 또는 육성된 참다래 4품종을 이용, 동물실험(생쥐)을 통해 밝혀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헤이워드'(그린키위)와 국내 육성품종 4개 품종의 과육추출물을 10일 동안 생쥐에 투여한 후 사염화탄소(CCl4)를 처리한 결과, 국내에서 육성한 '한라골드' 추출물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간 손상의 혈청학적 지표를 정상과 비슷한 수치까지 낮추어 간 질환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실리마린(Silymarin)에도 손색이 없음을 입증했다.

'한라골드'는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 2007년에 육성한 황색 참다래로 식미감이 뛰어나 보급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는 품종이다.

2004년에도 농촌진흥청과 제주대학교 이영재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참다래가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동물실험 결과를 밝혀 참다래 소비 확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크게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참다래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확인

됨으로써 우리 품종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 이외에도 외국 품종에 대한 경쟁력을 갖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유기농 고추재배농가에 희소식, 반 비가림시설

- 농진청, 고추탄저병 방제효과 탁월한
반 비가림시설 개발 -

농촌진흥청은 유기농 고추재배농가의 골칫거리였던 탄저병 방제를 위해 개발한 '반 비가림시설'이 농가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반 비가림시설은 통풍과 일조가 노지재배와 유사하고 비바람을 막아 고추 탄저병균의 전염을 완전히 차단한다. 고추 유기재배 농업인 김명수(강원 화천) 씨는 "반 비가림 시설 설치 후 탄저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품질이 향상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고 50%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재배 2년 후부터, 국고 70%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 해부터 농가 순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장은 "고추 탄저병 방제 외에도 고추역병 해결을 위해 시판 고추 품종 47종을 대상으로 역병 저항성, 생산량 등이 우수한 유기농 적합품종 3종을 선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쉽고 빨라진다.

-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분석 거점화 -

농산물 안전성 판정이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비싼 검사 비용과 분석기관 부재로 잔류농약 분

석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거점화해 재배농가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담당자들은 농촌진흥청에 2~3개월씩 파견되어 전문 농약분석 교육을 받거나 출장교육, 워크숍 등을 통하여 130종 이상의 농약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최신 검사법을 습득해서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거창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잔류농약 다중분석법을 딸기, 사과 등 지역특산물에 적용하여 대형마트 납품 검사성적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에 대한 사전 안전성검사 실시로 수출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장은 “지난 2008년부터 예방위주의 식품안전성 기반 구축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분석기술 지원은 물론 최신 농약 분석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지에 모든 식물을 재배할 수 있어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2009.11.28부터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 허용,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 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되어,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

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농지로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2010.1.1부터 2011.12.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여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2010.1.1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12.31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까지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 지역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12.31까지 지정하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 영농여건 불리농지 : 소유제한이 완화되어 비농업인도 소유하여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시 허가대신 신고로 가능

* 무상공급시 : 전액감면, 조성원가의 50%·70%로 공급시 : 50%감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메밀, 항당노와 노화방지의 열쇠를 찾다

- 쓴메밀의 '루틴' 이 기능성 식품소재로 변신 -

'메밀꽃 필 무렵' 소설속의 메밀은 더 이상 구황 작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소박하고 은은한 풍미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던 메밀국수 속에 숨겨진 새로운 기능활성 물질을 찾아내고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건강식품으로써 거듭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쓴메밀의 항당노와 노화방지 효과 등 새로운 기능성을 찾아내고, 다양한 식품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메밀의 신수요를 창출하고 메밀산업의 대대적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밀은 식품학적인 가치가 인정되면서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소재가 단순하고 품질이 낮아 메밀산업은 침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내 메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메밀의 새로운 기능성을 밝히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식품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수요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메밀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메밀에 비해 약리적 효과가 뛰어나고 수량도 많아 산업체와 농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성 쓴메밀 품종 '대관3-3호'를 개발했다.

'대관3-3호'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루틴' 함량이 기존 메밀에 비해 70배 이상 월등히 높고 세포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1년에 2번 재배가 가능하고 연차간 재배안정성이 뛰어나 수량이 기존 메밀에 비해 20% 이상 높아 새로운 특화작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쓴메밀의 '루틴'은 동물 임상시험을 통해서 항당노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쓴메밀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는 'sirt1' 유전자는 항당노 외에 암 발생 억제와 노화방지와 관련된 유전자로서 금후 새로운 천연활성 의약품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100% 메밀국수 제조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기능 활성 물질이 증진된 새로운 '컬러새싹 채소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쉽게 쓴메밀 관련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현재 산업체와 공동으로 쓴메밀의 기능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 소재들을 개발했고, 일부는 이미 제품화되어 판매 단계에 있으며, 쓴메밀에서 처음 확인된 노화억제 유전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금후 항암, 노화방지 및 항당노에 대한 인체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개발된 기능성 쓴메밀 품종과 다양한 식품소재들이 침체를 맞고 있는 한국 농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풀 발효사료'가 임신한 돼지의 변비 없애

- 농진청, 유산균, 섬유소 풍부한

임신돼지용 풀 발효사료 개발 -

농촌진흥청은 임신돼지용 풀 발효사료가 임신돼지의 변비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억원의 수입곡물 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배합사료는 섬유소 함량이 낮아서 임신한 돼지가 섭취하게 되면 변비가 자주 발생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료 내 섬유소의 수준을 높여 주면 되는데, 사료배합의 어려움이 있어 배합사료 회사에서는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은 배합사료에 사일리지를 30% 포함하여 유산균과 섬유소가 풍부한 임신돼지용 풀 발효사료를 개발했다.

임신한 돼지에 풀 발효사료를 80일간 급여한 후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구 중 CD4는 32%(5.04% ⇒ 6.66), CD8는 40%(5.59% ⇒ 7.80) 증가하여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사료를 먹은 돼지의 분은 그 형태가 선명해 변비증상이 나타났지만, 풀 발효사료를 먹은 돼지의 분은 수분함량이 많아 변비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험농가로 참여하고 있는 비전농장 대표는 후보 임신돼지에 풀 발효사료를 급여한 결과, 포만감을 충족시켜 주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돼지의 체형과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는 임

신돼지에게도 급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촌진흥청 양돈과장은 “국내 임신돼지 사료의 소비량이 연간 100만톤 정도 이용되고 있어, 임신 돼지용 풀 발효사료를 보급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용 곡물 10만톤을 대체할 수 있어 연간 4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어 앞으로 임신돼지용 풀 발효사료 급여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하겠다”고 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㉞

45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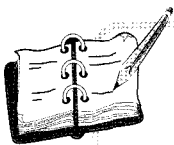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이렇듯 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꿋꿋하게 맥을 이어온 45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1394-01-000536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